



한농연 조직혁신위원회 구성의 의의 및 활동방안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수석부회장

김 흥 기



1. 들어가며

지금도 가끔은 일부에서 한농연을 보고 ‘호랑이 새끼를 키웠다’는 말들을 하곤 합니다. 정부 정책에 의해서 설립된 한농연이 이제는 오히려 당당하게 농업정책에 대응하는 현재의 모습을 보고 반우스갯소리로 하는 것입니다. 한농연이 바로 그 호랑이 새끼로 태어난 날은 87년 12월 9일 ‘전국 농어민후계자협의회’를 창립한 이후부터입니다. 이 때에는 비록 낮은 단계지만 농정대응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기 시작했으며 이 당시 농정활동의 기본방향은 농업관련 기관들이 제역할을 하도록 하고 정부는 농민들의 생존권과 농업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수준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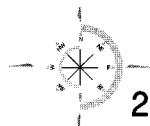
물론 농어민후계자 육성 사업은 1981년부터 선정되기 시작하였으며 지역별로도 다양한 모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지만 전국단위 조직은 결

성되지 않은채 시·군단위 이하의 조직에서 친목 위주의 모임과 활동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농정현안과 농산물 수입개방문제, 우루과이 라운드를 거치면서 한농연은 태생적 한계를 뛰어넘는 자주적 조직체로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루어 냈으며 현재는 우리나라 농업계를 대표하는 농민단체로 우뚝 솟은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직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살아있는 생명체이며 조직의 정체란 곧 퇴보로 이어지기 때문에 한농연은 올해를 조직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한농연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중앙연합회에서는 1월에 임직원 워크숍을 통해 한농연 조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도출을 위한 논의를 심도 있게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논의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의 문제점과 향후 혁신방향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한농연의 문제점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농연의 사회적 위상과 힘은 과거에 비해 굉장히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첫째, 한농연 출신 지방의원과 조합장의 양적인 확대, 정치권을 추동하는 힘, 합리적인 대안제시 세력으로서의 위상은 강화되었으나 이러한 양적인 외연의 확대를 100% 한농연의 힘으로는 연결 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즉, 정치적인 힘이 커졌다고는 하나 그것은 한농연 조직의 힘을 등에 업은 것 뿐이며 직접적인 한농연의 정치권 진출은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서 이러한 사실을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취농창업농의 경우 한농연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정관은 개정하였으나 재촌 후계농업인 만큼의 조직결합력은 미지수로 새로운 수혈세력이 기존의 인물들 만큼 조직에 이바지 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곧 조직의 약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셋째, 갈수록 적어지는 농업인구와 농업세력의 약화, 마음의 고향으로서의 농촌의 존재 비중의 축소, 식생활의 변화(페스트푸드의 유행)는 농업의 약화로 이어지며 농업의 약화는 곧 농민, 농업 경영인의 사회적 약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농업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8%정도로 축소되었으며 수입농산물이 범람하고 있으며 신토불이라는 의식도 많이 약화되어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넷째, 전국적인 한농연시·군연합회 사무실 조직망은 무시할 수 없는 조직력의 바탕이 되고 있으나 이러한 외형에 비해 열심히 참여하는 한농연 활동가와 건강한 내부 구성원의 비율은 갈수록 저조한 형편입니다. 이제 일부에서 지역에 사람이 없다는 푸념이 나오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다섯째, 그리고 한농연 예산의 20%를 자체적인 회비로 충당하고 나머지를 관련기관 및 업체의 후원에 의존하고 있어 재정 자립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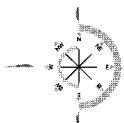
여섯째, 사상적·이념적 무장의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회원간 의식의 편차가 심합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한농연 조직의 후광으로 지역 사회의 지도자로 인정받고 대접받는 경우가 많아 끊임없이 지역조직을 이끌어가는 한농연 지도자를 배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이러한 점은 한농연 조직의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농민단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향후 행보에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양자가 충돌할 경우 사상과 신념의 부재는 위기상황에서 쉽게 좌절하는 요인이 되기도 함을 우리는 종종 보았습니다.

일곱째, 일선의 기대치가 높은데 비해 피부로 다가오는 성과가 적으로 중앙연합회는 무엇을 하느냐는 질타와 푸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덟째, 중앙연합회에 비해 도와 시군연합회의 경우 지역 자체의 정책생산 능력이 부족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농업정책대안을 활발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사무직원들의 찾은 이직은 제일 큰 원인일 것입니다. 또한 아주 일부이긴 하나 사무직원을 함께 가는 동지적 입장에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심부름꾼으로 생



각하여 함부로 대하는 일부 시군임원들의 태도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농업에 대한 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직장으로 생각하고 입사한 직원의 경우 오래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중앙연합회의 역할뿐만 아니라 도와 시군연합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나 시군연합회의 직원들은 단순 업무를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시군의 회장님들도 더 큰 역할을 주시지 않는 점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3. 한농연 조직강화 방안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한농연의 정확한 모습을 진단하고 그 개선책을 모색하고 주도적인 고민을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농연 중앙연합회는 지난 2월 11일 1차 이사회에서 조직혁신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활동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각 지역에서 한농연의 기본을 이루고 계신 한농연 읍·면회의 회장님과 시·군연합회장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조직의 혁신은 바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공부하고 먼저 문제 의식을 느낀 사람이 앞장서 이끌어 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한농연의 발전을 위해 중앙과 도연합회, 시·군과 읍·면 구분없이 한마음 한 뜻으로 나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한농연 조직혁신위원회 구성(2월 11일 1차 이사회)**
 - 조직 혁신의 과제를 장기적으로 추진
 - 구성방안
 - ▶ 위원장 : 중앙회장
 - ▶ 위원 : 중앙 부회장, 각 도연합회장
 - ▶ 실무 소위원회 구성 : 중앙연합회 직원 3인, 각 도연합회 사무처(차)장
 - 활동방안
 - ▶ 중앙연합회 : 전체적인 일정조정과 중앙 단위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각 지역의 의견 종합 및 분석, 도단위 토론회(간담회) 개최
 - ▶ 각 도연합회 : 일선 현장의 의견 수렴 및 시군단위 토론회(간담회) 개최, 시군지역의 모범사례 취합 및 문제점 취합
- **한농연 회원 모두가 공감하고 인정하는 장기적인 발전 청사진 제시**
 - 상층 일부의 논의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토론과 논의를 거치는 과정속에서 합의를 도출해야 함
 - ▶ 일선의 사례 및 현안을 수집하여 그 안을 바탕으로 토론을 진행
 - 의식적인 측면
 - ▶ 한농연의 이념과 지향점 논의(한농연 강령을 기본으로 함)
 - 조직의 운영방안(조직원의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 내고 있는가?)
 - ▶ 현재의 정세 속에서 한농연 조직의 역할은 무엇이고 무엇을 할 것인가, 한농연의 발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이루

기 위해 한농연 회원으로서 할 일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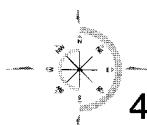
- 경제적인 측면 :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
- ▶ 각 도 및 시군연합회의 운영자금 조달 방안 실태 조사 및 분석
- 한농연 회관의 확대 이전도 장기적인 발전 청사진 속에서 논의
- ▶ 농협 연수원처럼 각종 교육과 숙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 한농연 회원만을 위한 특화된 농업정책의 개발 : 회원들에 대한 동기부여
- 회원의 정예화와 회원 회비의 인상

- 참여가 저조한 부실회원을 정리하고 정예회원으로 조직을 정비한다면 그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며 회원회비의 인상방안 등 각종 문제점 논의
- 한국농어민신문 보급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가 등 다각적인 검토

○ 한농연 회원 명부 작성

- 실제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한농연회원을 파악, 명부의 전산화작업으로 data base 구축(충북도연합회의 경우 3년에 걸쳐 완성)
- 선정연도, 주작목, 주소, 연락처, 직책, 소속 등
- 도와 시군연합회의 긴밀한 협조 필요



4. 한농연 조직혁신위원회 활동 일정(안)

월	주 요 추 진 활 동
1월	○ 중앙임직원 워크숍을 통한 조직발전위원회 계획(안) 수립 및 추진
2월~6월	○ 한농연조직혁신위원회 구성(제1차 이사회) ○ 각종 자료 수집 활동 전개(각 도와 시군연합회의 모범사례 수집) ○ 설문조사 준비
7월	○ 각계의 전문가 초청 간담회 및 지역순회 토론회 ○ 개략적인 조직 강화 방향 설정
8월	○ 각 도 농업경영인대회의 적극 활용 - 조직발전을 위한 토론회 및 설문조사
9월	○ 농업계 전문가들과 정치권에 한농연의 발전을 위한 의견 청취(설문조사방식)
10월	○ 조직발전위원회 전체 회의
11월	○ 전국단위 대토론회 개최
12월	○ 대의원총회의 의결